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c.co.kr 080)320-7700

볼트 '우승 포즈'

25일 오후 대구시 남구 대명동 대덕문화전당에서 열린 자메이카 대표팀과 우사인 볼트의 기자회견에서 볼트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육상 3인방 '뛰고 달리고 넘는다'

김덕현·임희남·박태경 새 역사 도전

김덕현 임희남 박태경

'뛰고 달리고 넘어라'

광주시청 육상팀의 3인방 김덕현(26·멀리뛰기·세단뛰기)·임희남(27·400m계주)·박태경(31·110m 허들)이 27일 개막하는 제13회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한국 육상의 새 역사에 도전하다.

세계 무대에 도전장을 낸 한국은 대구에 광주시청 소속의 3인방을 비롯해 63명의 선수단을 파견했다. 광주시청의 저력을 과시해온 이들 3인방은 한국을 대표하는 주요 선수다.

멀리뛰기와 세단뛰기에 출전하는 김덕현(26)은 결선진출 0순위 후보로 꼽히는 한국 육상 대표팀의 에이스.

김덕현은 지난해 광저우 아시안게임 멀리뛰기에서 8m11를 날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번 대회에서도 멀리뛰기에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김덕현의 주종목은 세단뛰기다.

지난 2007년 오사카 세계대회에서 한국 육상 선수로는 8년 만에 결선에 진출했던 김덕현은 안방 무대에서 영광 재현을 노리고 있다.

김덕현의 슈퍼 파이널을 위한 도전은 9월 1~2일 멀리뛰기 예선과 결선, 2일과 4일 세단뛰기 예선과 결선 무대에서 펼쳐진다.

임희남은 이번 대회를 위해 야심적으로 꾸려진 한국 남자 400m 계주대표팀의 마지막을 책임진다.

지난 5월 한국기록을 23년만에 새로 쓴 계주대표팀은 8개팀에게 주어지는 결승 티켓을 노리고 있다. 임희남은 여호수아·조규원·김국영과 호흡을 맞춰 마지막 주자로 달린다. 대회 마지막 금메달이 나오는 4일 남자 400m계주, 임희남이 그 대미를 장식하기 위해 호흡을 가다듬고 있다.

지난 광저우아시안게임에서 한국신기록(13초48)으로 값진 동메달을 목에 건 박태경은 대표팀의 맏형으로 감격의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주장으로 선수단을 이끌고 대회를 준비해온 박태경은 28일 110m 허들 출발대 앞에 선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파월 100m 불참

자메이카의 간판 스프린터 아사파 파월(29)이 제13회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100m에 출전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파월은 25일 대구 대덕문화전당에서 열린 자메이카 대표팀의 기자간담회에 맞수인 우사인 볼트(25)와 함께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파월 대신 마이크를 잡은 한 선수는 "파월이 100m에 출전하지 않기로 해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됐다"고 말했다.

자메이카 선수단 단장인 그레이스 잭슨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지금 팀 내부에서 회의 중"이라고 말해 파월의 불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러나 볼트는 "처음 듣는 얘기다. 어제 봤을 때만 해도 열심히 준비하는 것 같았다"며 전혀 몰랐다는 표정을 지었다. /연합뉴스

트랙 종목 순위는 '동체' 결승선 통과 기준

세계육상 알고 보면 재미 두배

제13회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는 남자 24개, 여자 23개 등 남녀 세부 종목 47개의 경기가 펼쳐진다. 이중 잘못 알려졌거나 헷갈릴 만한 종목이 적지 않아 바로 알고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100m·200m·400m·400m 계주 등 트랙 종목에서는 무조건 선수의 동체가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을 기준으로 순위가 결정된다.

동체는 허리 아랫부분을 뺀 가슴, 팔, 배, 머리를 포함한다. 대구 조직위원회는 결승선 근처에 계측 카메라 한 대와 관중석 상단의 사진 판독실에 카메라 2대를 설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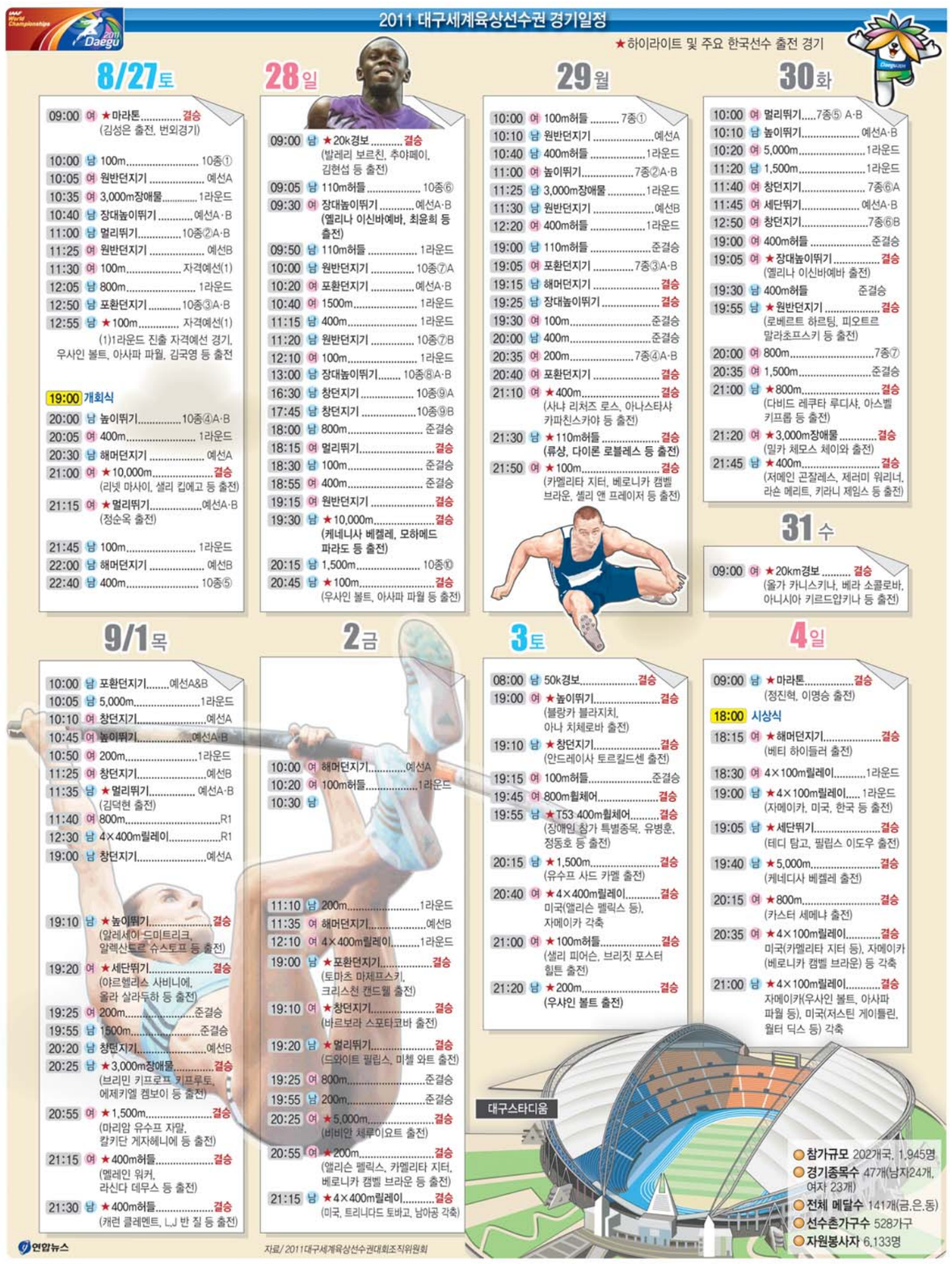
이를 활용해 1초에 2000 장의 사진을 찍어 어떤 선수의 몸이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는지를 정밀하게 본다.

바통을 주고받는 계주 경기도 마찬가지다. 어느 팀의 바통이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흔히 '앵커'로 불리는 바통을 쥔 네 번째 주자 중 어느 나라 선수의 동체가 결승선을 통과했는지에 따라 메달이 결정된다.

'허들'과 '장애물 달리기'는 엄연히 다른 종목이다.

허들(hurdle)에는 장애, 걸림돌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육상에서의 허들은 트랙에 일정한 간격으로 놓인 10개의 구조물을 넘는 종목을 통칭한다. 허들 종목에는 남자 110m·여자 100m·남녀 400m가 있다. 남자 110m 허들의 높이는 1.067m다. 반면 여자 100m 허들의 높이는 83.8㎝로 상대적으로 낮다.

'장애물 달리기'에서는 허들에 물웅덩이가 추가된다. /연합뉴스



GRAND OPEN 8월 30일
유·스퀘어 사우나 24시
위 치 : 유·스퀘어, 광천동 버스터미널 2층 주차안내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